

가족행복지수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 건강가정사업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 *

조 은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가족의 주관적 안녕감으로서의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도구인 가족행복지수(Family Happiness Index)를 건강가정사업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족행복정서라는 정의적측면의 척도와 가족생활만족이라는 인지적측면의 척도 두가지를 개발하여 이 두가지 척도 점수의 조합으로 지수를 개발하였다. 선행척도들을 참고하여 선별된 예비문항을 가지고 379명의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조사를 통해 최종척도문항을 선별하였고, 인터넷조사와 건가센터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에 두 개의 하위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본 가족행복지수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최초의 측정도구 중 하나로서,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가족행복척도 개발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가족행복지수, 가족행복정서척도, 가족생활만족척도, 건강가정

* 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과제연구인 [가족행복지수개발연구]의 내용을 요약, 편집 및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논문 심사자들의 논평이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조은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781-7782 / E-mail: grace123@smu.ac.kr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주관적 안녕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족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행복지수(Happiness Index)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지표로서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하는 자료이다(OECD, 2012). 가족행복지수는 가족이 단위로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말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한국인들의 관심은 이제 삶의 질로 옮겨가고 있다(조희금 외, 2013: 25).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이나 결혼생활로부터 오는 만족(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임을 감안할 때 가족의 행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행복지수개발은 이러한 가족행복연구를 위한 첫 단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행복은 삶의 객관적 조건의 충족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되기도 하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차원에서 주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되기도 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배웅규, 김동용, 윤용우, 정동섭, 2013; 서은국, 구재선, 2011). 객관적 지표를 통한 한국인의 가족행복은 이혼율, 자살율, 가족소득, 가사노동분담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측정하는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해서는 방법론상 측정도 쉽지 않으며 체계적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도 미진한 상태이다.

한편, 가족관계학의 중요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의 측면에서도 가족행복지수 개발은 필요하다. 건강가정사업은 가정건강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

건강성이란 가족의 긍정적인 힘에 초점을 둔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 perspective)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가정의 안정성과 기능성, 위기극복 능력, 관계만족 등의 하위요소를 가지는 개념이다(조희금 외, 2013: 30-31). 반면 가족행복은 가족원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인지적인 만족정도와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족행복은 건강한 가족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일 수 있고 가족행복과 가정건강성 두 개념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양순미, 2004)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기존의 가정건강성 척도(유영주, 2004; 정영금, 박정운, 송혜림, 2010)는 '건강한 가정'이 지향하는 규범적 기준을 가지고 각 가정이 그 표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건강성은 가족원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이나 행복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개별 가족차원에서 가정의 건강성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가정건강성의 주관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가족행복지수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행복척도 관련 연구, 가족체계측정관련 연구 등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으로서의 가족행복을 인지적(cognitive) 차원과 정의적(affective) 차원 두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여 그 둘을 조합하여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지수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정의적 차원을 반영하는 '가족행복정서척도'와 인지적 차원을 반영하는 '가족생활만족척도'의 하위영역과 구체적인 문항 선정에 대해 일반 집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종문항선별과 최

중척도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검증이 이루어졌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재검토되었다. 넷째, 척도의 활용가능성 검토를 위해 일반집단과 건가센터이용자집단의 자료를 활용한 시범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가족행복의 측정을 시도하는 초기 연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족행복지수의 개발과정을 소개하는 것 뿐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고려한 가족행복측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연구자들과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가족행복에 대한 더 나은 측정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행복과 가족행복

1) 객관적 조건의 충족 대 주관적 안녕감으로서의 행복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돈이나 성적, 학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한국갤럽, 2008). 반면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성, 연령, 소득, 교육 등과 같은 외적 인구학적 변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오히려, 성격이나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적 변수가 인구학적, 객관적 조건 변인보다 행복의 개인차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행복 경험의 주관성 측면은 행복을 측정하는 과학적 연구들

이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행복보다는 주관적인 안녕감으로서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 가족행복

가족행복의 개념이나 측정, 가족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자가 아는 한 국내연구로는 양순미(2004)의 부부행복 변인에 대한 연구, 박민자(2006)의 행복가족 요소에 대한 연구, 김승권(2013)의 가족행복 요소에 대한 분석이 있을 뿐이다. 가족행복이라는 개념의 주관성과 모호성 때문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학자들은 ‘가족행복’이라는 개념 대신 가족생활의 질(quality of family life), 결혼생활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주관적 복지감(subjective well-being) 등과 같은 개념을 주로 사용하며 가족행복(family happiness)이라는 용어를 즐겨쓰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Booth & Van Ours, 2008; Lu & Lin, 1998; Rogers & White, 1998).

1980년대 이래로 가족학 분야에서 건강가족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행복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강가족연구(혹은 가족역량연구: family strength research)는 연역적 혹은 귀납적 연구방법을 통해 가족의 역량, 힘, 건강성 등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건강가족을 연구하는 서구학자들은 가족의 건강성이 가정의 구조나 형태보다는 기능과 상호작용적인 면에서 나타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행복 연구자들이 행복이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안녕감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기 시작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 내부인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유대 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 면에서 활동성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따르는 정영금, 송혜림과 박정윤(2010)의 연구에서도 가정 건강성에서 내적, 외적 관계성을 모두 강조하였다. 반면 임상심리적 연구경향을 보인 학자들은 가정건강성을 주로 가족체계의 내부적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Epstein, Baldwin & Bishop, 1983; Olson, Russell & Sprenkle, 1989). 즉 가족이 이웃이나 지역사회 등 가족 외부적 영역과 맺는 관계보다는 가족구성원들 간에 서로 맺는 관계에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이 관계에서 병리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한편 주관적인 안녕감으로서의 가족행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연구는 국내에서는 박민자(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민자(2006)는 질적 연구를 통해 가족의 행복수준을 결정할 때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행복가족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인들은 건강,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 전체가 같이 하는 활동, 같이 하는 시간, 가사노동 분담, 친척과의 교류, 친구 및 이웃과의 교류, 가족 간 사랑 표현 등 가족 간에 결속을 다지는 노력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행동이나 활동은 행복요소로서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홍콩인들이 생각하는 가족행복과 가족화목, 가족건강이라는 개념들 간의 상관성과 독특성을 질적인 연구로 풀어낸 Lam 등(2012)의 연구는 가족행복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중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이후 김승권(2013)은 가족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족건강과 가정안정(가족의 안정적 형성 및 유지, 가족의 생활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가족

의 역할 안정, 안정적 가족보호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가족행복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혹은 하위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가족행복개념을 계량적 척도와 등으로 진전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2. 행복지수 및 가족행복지수 측정 방법

1) 행복에 대한 측정

행복에 대한 측정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관적인 만족감만을 행복이라 보기도 하고,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된 정도와 주관적인 만족감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도 한다(배웅규 등, 2013; 서은국, 구재선, 2011). 따라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지수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첫째는 행복을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 외부환경조건, 즉 건강이나 경제, 여가시간, 평등 등 환경적 조건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지를 지표화시켜 그것을 행복수준으로 본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지수로 자주 사용되는 OECD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는 이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nger, Conger, & Martin, 2010)가 있는 반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나 행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 힘든 선행연구결과(배웅규 등, 2013)도 존재하

여 이러한 행복측정방법이 가진 한계를 보여 준다.

둘째는 행복을 총체적인 행복감의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보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총체적 수준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보건사회연구원, 2015; 양순미, 2004).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측정방법이 이에 속한다(표 1 참고). 이런 측정방법은 대답하는 사람이 특정 기준이 없이 전반적인 행복을 답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이 개인의 낙관성이나 긍정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일문항으로 총체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경우 문항수의 제한으로 인해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셋째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직장, 친구 등의 중요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감이나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기초로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활용되어오던 방식이며,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요소들에 대한 충족 정도를 묻는 형식으로 질문이 만들어진다. 이 방식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개인이 각 영역마다 부여하는 중요도가 같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인데,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한 다양한 척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방법에 대해 구재선과 서은국(2011)은 측정치 자체에 경제수준이나 학력, 종교생활 등 객관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행복에 대한 인공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는, 행복을 측정 당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의 빈도가 많고 강하며, 부정적 정서의 빈도가 적고 약하다는 가정을 하면서 측정 당시의 정서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행복 정도를 가늠한다.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의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PANAS), Diener, Scollon과 Lucas(2003)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척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서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한 순간의 측정치를 그 사람의 행복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일반화의 문제에 봉착한다.

다섯째는 행복을 측정할 때 한 방식만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행복측정방식을 조합적으로 통합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통합적 방식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행복을

〈표 1〉 전반적 만족도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들

저자	척도명	행복척도 구성 방식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
Lyubomirsky & Lepper (1999)	Subjective Happiness Scale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 4문항
Fordyce (1977)	Happiness Measures (HM)	단문항으로 행복을 질과 양으로 측정함

〈표 2〉 행복의 요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중심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의 예

저자	척도명	행복척도 구성 방식
Ryff (1989)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자아수용, 자율성,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성장, 삶의 목적 등 6개 하위영역 총 54문항
양옥경 (1994)	삶의 만족척도	가족과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건강, 의식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등 8개 하위영역 33문항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 척도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사회, 정치, 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자녀의 바른 성장, 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배우자와의 사랑, 대인관계, 외모, 긍정적 인생관, 건강 등 16개 하위영역 48문항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자아행복감, 가족행복감, 학교생활행복감, 과외생활행복감, 친구행복감 등 6개 하위영역 총 29문항

측정하는 것에 비해 다면적인 행복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구재선, 2005; 박병기, 홍승표, 2004; 서은국, 구재선, 2011; 이창섭, 2009)에서 채택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인지적 방식으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정의적 방식으로서의 긍정 및 부정정서를 측정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하였다(표 4 참고).

행복을 측정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행복의 개념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보고, 인지적인 방식과 정의적인 방식 두 가지를 통합하여 행복을 측정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지적 방식이란 삶의 중요영역에 대한 충족정도 혹은 만족도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고, 정의적인 방식은 측정 당시의 긍정 및 부정정서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 3〉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통해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의 예

저자	척도명	행복척도 구성 방식
Watson et al. (198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	긍정정서단어 10문항 부정정서단어 10문항
Diener et al. (2003)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척도	긍정정서 43문항 부정정서 56문항
정은선(2008)	행복감척도	Lawton(1975)의 PGC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개

〈표 4〉 다차원적 방식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의 예

저자	척도명	행복척도 구성 방식
구재선 (2005)	행복감척도	Diener 등(1985)과 Diener 등(2003)의 척도 번안 수정하여 사용. • 삶의 만족 7문항, 긍정정서 43문항, 부정정서 56문항
이창섭 (2009)	행복감척도	• 삶만족도: Diener 등(1985)의 5문항 사용 • 정서적 경험: 정적정서 6개, 부정적정서 14개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척도	• 삶의 만족 3문항, 긍정정서 3문항, 부정정서 3문항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감척도	• 삶의 만족도 • 정적, 부정적정서경험차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총 30문항 (하위 영역명: 부적효능, 정적효능, 정적정서, 부정정서, 대인관계)

2) 가족행복에 대한 측정

(1) 가족행복의 개념 및 측정의 난제

가족행복에 대한 측정 역시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시작한다. 행복이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보는 관점은 심리학분야의 행복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이다. 이러한 행복의 정의를 가족행복에 적용해보면 두 가지 방식의 가족행복 정의가 나온다. 첫째는,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가족행복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가족행복은 개인행복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행복 연구자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하위영역별로 각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여 그것을 개인의 행복정도라고 가정하고 있다(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Diener et al., 1985). 이 때 중요하게 포함되는 측정의 영역이 가족이다. 가족행복은 ‘가족에서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가족구성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박민자(2006)의 입장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가족행복을 ‘가족이 단위로서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의 주관성은 집합적이며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인 경험이다. 즉, 개인이 볼 때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며, 이 때 개인의 평가는 가족이 집합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정서에 대한 보고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본 가족행복지수 개발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행복 정의를 수용하여 개인이 평가하는 가족단위의 주관적인 안녕감을 ‘가족행복’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가족단위의 행복을 측정할 때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결혼만족도, 가족생활의 질, 가족응집성이나 적응성, 가정건강성 등 가족체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척도는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측정하고 있다(유영주, 2004; Epstein, Baldwin, & Bishop, 1983; Olson, 1986; Snyder, 1979). 가족체계를 과연 한사람의 시각에 의존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최적의 응답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가족체계 측정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난제이다. 가족체계 전체를 임상적 관찰 등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인 이상 응답의 평균값으로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등의 해법(김영식 외, 2012)이 나오고는 있지만, 연구나 현장에서는 대체로 일인의 응답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조은숙, 진미정, 2015). 본 가족행복지수 개발은 가족단위에 대한 측정을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가족행복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어려움을 안고 시작되었다.

(2) 가족행복의 인지적 측면 측정

행복측정연구의 경향을 고려해볼 때, 가족생활 각 영역의 질이나 만족을 측정하는 것은 가족행복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행복의 인지적측면에 대한 측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의 선두에는 ‘가족생활의 조화와 만족’을 측정하는 Guerney (1977)의 FLQ(Family Life Questionnaire)가 있다. 그 이후 Olson과 Wilson(1982)이 14문항의 가족생활만족척도(Family Satisfaction Scale)를 개발하였으며, 그러한 척도연구는 Olson 등(1989)의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Epstein 등(1983)의 FAD(Family Assessment Device) 등의 대표적인 가족체계측정척도들로 이어졌다. 또한 가족건강성의 측면에서 가족생활을 측정한 가족건강성척도(유영주, 2004; 정영금 등, 2010)도 가족생활 각 영역에 대한 평가라는 인지적 측면에서 가족생활을 측정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순환모델을 기초로 가족체계 척도 연구를 발전시켜 온 Olson 등의 연구(Olson et al., 1989)에서는 가족기능성의 중요 축으로 응집

성과 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을 꼽고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가장 포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가족기능과 가족행복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족체계의 MacMaster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FAD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 전반적 기능 등의 하위영역별로 가족체계를 측정한다(Epstein et al., 1983).

한편 유영주(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감사와 애정, 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대 의식, 가치관과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 9개 하위영역을 가정건강성측정에 활용하였고 동일한 맥락에서 정영금 등(2010)은 가족관계적 측면뿐 만 아니라 가족자원관리, 외부체계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의 기본토대가 되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가정건강성여부를 측정하였다.

가족행복의 요소를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박민자(2006)는, 한국인들이 가족행복의 요소로 보는 것에는 건강, 경제력, 가족원간의 신뢰, 이해, 인정, 존중 등의 인지적 평가적 요소와, 대화, 사랑의 표현, 공통 활동,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 가사노동 분담 등의 행동경향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 박민자와 김종숙(2009)은 행복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 요소를 연구하였는데 여기에는 경제와 건강 등의 기본조건, 역할과 권력, 의사소통, 응집력과 적응력 등을 포괄하는 가족관계적 요소, 그리고 가족윤리와 가족사회활동을 포함하는 공통체문화영역의 요소들이 나타났다. 또한 김승권(2013)의 가족행복연구에서는 가족행복의 요소로 가족건강과 가족안정 두 가지 차원이 나타났다.

미국의 가족체계척도 연구와 한국 연구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한국인의 경우 경제적 안정, 건강, 역할수행 등과 같은 가족 삶의 기본 토대가 가족체계의 건강성과 행복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족행복 중요요소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가족행복을 인지적 측면에서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척도개발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가족행복의 하위영역들을 포괄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3) 가족행복의 정의적 측면

가족행복을 측정 당시 가족이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도로 측정하는 것을 정의적 측면의 가족행복이라고 본다. 정의적 측면에서 가족행복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는 흔하지 않다. Barraca, Yarto와 Olea(2000)가 개발한 형용사로 나타내는 가족만족도 척도(Family Satisfaction by Adjectives Scale: FSAS)는 정의적 측면의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의 대표적 예이다. 이 척도는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대체로게 느낀다” 라는 지시문 하에 다양한 각성 수준의 감정형용사 27개 쌍(예를 들면 행복한-불행한)을 양극단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는 한 이와 같은 방식의 가족행복척도는 이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박민자(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행복과 더불어 언급되는 정서언어로 즐거움, 화목, 편안함, 미움과 같은 단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진미정, 조은숙, 지혜, 최슬민(2013)은 행복한 가족이 보이는 특성에서 신뢰, 사랑, 보람, 감사, 의지, 인정 등의 정서형용사가 사용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의적 측면에서 가족행복척도 개발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4) 전반적인 가족행복의 측정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으로 행복을 분석하지 않고, 1-2개 소수의 문항으로 ‘전반적인’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가족행복측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이 처한 문화적 맥락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주관적이면서 전반적 가족생활만족을 측정하는데 유리하지만, 응답자의 긍정지향성을 포함한 인성특성이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척도의 예는 Zabriskie와 Ward(2013)의 가족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WFL)가 있다. 이 척도는 Diener 등(1985)의 행복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원용해서 만들어졌으며, 각 영역별 만족도 보다는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를 물어봄으로써 각 영역에 부여하는 각 개인의 중요도 차이로 인한 인지적 행복척도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 시도이다. 예를 들어 “대체로 나의 가족생활은 이상에 가깝다”, “나는 나의 가족생활에 만족한다”와 같은 전반적 만족을 묻는 질문이 5개 제시되고 각 질문에 대해 7점 리커트형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는 방식이다. 또한 널리 알려진 4문항의 캔사스 가족생활만족척도(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 Mccollum, Schumm & Russell., 1988)는 가족의 특정관계별(부부, 부자녀, 모자녀, 형제관계)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묻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SWFL과 같은 맥락에서 개발된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1-2 문항으로 전반적인 가족행복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김승권, 2013; 보건사회연구원, 2015; 양순미, 2004)에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전반적 가족행복측정 문항을 준거문항으로 사용하여 척도구성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가정건강성과 가족행복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입프로그램들을 말한다. 건강가정사업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평가 내용과 성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자성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정영금 등, 2010). 이러한 자성과 비판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이용자들에게 친밀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연구들이 시행된 바 있다(송혜림, 조영희, 라휘문, 박충훈, 2011; 정영금 등, 201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가정 건강성 개념에 충실하여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거나, 개인-가족-사회의 균형이라는 중장기적 가치를 포함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가족관계문제징후척도나 가족스트레스척도(진미정 등, 2013)는 가족의 문제 정도를 측정하여 그것의 개선여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행복’ 혹은 ‘가족행복’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가족의 긍정적 측면

의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양순미, 2004)에서 가족건강성이 부부의 행복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는바, 가정건강성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관적 측면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가족행복지수의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수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가족행복지수는 가족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가족행복지수는 가족원 일인에 의해 지각되는 가족단위의 행복도를 측정한다. 행복이라는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주체는 개인인데, 한 개인이 ‘가족’의 행복수준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라는 측정상의 난제를 안고, 본 연구는 가족전체가 느끼는 행복수준을 개인이 평가하도록 하여 그것을 ‘가족행복’이라고 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셋째, 본 가족행복지수는 가족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정도인 정의적 측면에서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방법과 가족행복의 주요요소들에 대한 만족 정도를 합산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개발된다. 즉, 가족행복지수는 두 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조합한 지수로 구성되게 된다.

2. 지수개발의 절차

가족행복지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개발되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가족행복지수의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문헌고찰내용은 앞 장의 선행연구고찰에 제시되어 있다.

2단계에서는 기 개발된 행복척도 및 가족체계척도를 참고하여 가족행복지수의 두 개의 하위척도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관련척도개발의 경험에 있는 교수 2인과 함께하는 전문가자문을 거쳤으며, 대학생 15인을 통한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 혹은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선정된 예비문항을 가지고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종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졌다.

4단계에서는 최종 선별된 문항만을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가 다시 이루어졌다. 또한 센터이용자와 3단계의 일반집단의 조사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가족행복지수의 건강가정사업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두 번의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친다.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인터넷조사기관을 통해 기관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5년 7월1일~8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성 및 연령별 안배된 표집으로 전국에 걸쳐 총 379명을 조사하였다. 인터넷조사의 특성상 부실응답자 없이 모든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집단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자기

보고식 지필검사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실 기재나 응답의 극단치 등이 없어 총 83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는 가족의 행복에 대한 것이므로 1명 이상의 다른 가족원과 일주일에 하루 이상 동거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는 윈도우용 SPSS 통계패키지(version 12.0)를 활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빈도, 백분율, 상관관계, 요인분석, 크론바하의 알파값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조사에는 남녀가 각각 47.8%, 52.2%, 연령은 1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인터넷조사의 특성상 60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이 25.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전체 한국인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서울시소재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남녀가 각각 16.9%, 83.1%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30대와 40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62.7%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30-40대 여성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이지만 가족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특성	구분	일반집단		건강이용자	
		빈도(명)	(%)	빈도(명)	(%)100
성별	남성	181	47.8	14	16.9
	여성	198	52.2	69	83.1
연령	10대	79	20.8	2	2.4
	20대	79	20.8	7	8.4
	30대	78	20.6	26	31.3
	40대	84	22.2	35	42.2
	50대	59	15.6	13	15.7
	60대	10	2.6	1	1.2
교육 수준	중졸(중퇴)	12	3.2	4	4.8
	고졸(중퇴)	115	30.3	17	20.5
	대학교(중퇴)	221	58.3	52	62.7
	대학원졸(중퇴)이상	31	8.2	10	12.0
가족 월수입	100만원 미만	9	2.4	4	4.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9	7.7	16	19.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4	14.2	26	31.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1	21.4	19	22.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0	21.1	14	16.9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95	25.1	-	-
	1000만원 미만	18	4.7	4	4.8
	잘 모르겠다	13	3.4	-	-
	전체	379	100.0	83	100.0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조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분포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2. 척도 예비문항 선정

이 절에서는 가족행복의 정의적 측면을 측정하는 ‘가족행복정서척도’와 인지적 평가로서

의 만족을 측정하는 ‘가족생활만족척도’ 각각에 대해 문항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문항선별

가족행복정서척도의 초기 문항 개발을 위해 활용된 척도 문항은 Diener 등(2003)의 긍정적 정서 43문항과 부정정서 56문항, Watson 등(1988)의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긍정

정정서 및 부정정서 각 10문항씩, 구재선(2005)의 행복감 척도 중 긍정정서 43문항과 부정정서 56문항, Barraca 등(2000)의 가족만족도 측정에서 사용된 형용사들이다. 그리고, 서은국, 구재선(2011)의 권유대로, 그 형용사들 중 정서의 강도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 23개를 선별하였다. 연구자들은 선별한 정서단어들에 대해 “당신의 가족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라는 대표질문과 함께 10점 리커트형 척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서를 측정할 시한을 ‘지난 한 달 동안’ 느낀 정서로 질문하였다.

가족생활만족척도의 하위영역 및 구체적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건강성,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선행 척도 및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활용된 척도 및 연구로는 박민자(2006)의 가족행복요소 연구,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Olson(2008)의 가족의사소통척도, 유계숙(2004)의 건강가족요소, 유영주(2004)의 가족건강성 척도, 진미정 등(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행복한 가족의 특성 등이다. 이를 기초로 가족생활만족척도의 하위영역으로 가족구조·역할, 가족상호작용특성, 응집성-유대, 사회와의 관계 4개의 영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하위영역은 안면타당도 검토 자문회의를 통해 가족구조·역할 영역을 기본토대 영역과 적응성 영역으로 이분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상위체계와의 관계로, 가족상호작용특성을 가족의사소통 이라고 영역명을 변경하면서 영역의 세부문항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족생활의 기본토대 4문항, 적응성 8문항, 의사소통 8문항, 응집성 8문항, 상위체계와의 관계 7문항 등 총 35문항

을 초기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선별한 문항들은 “귀하의 가족은 다음에 제시되는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요?”라는 지시문과 함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제시되었다.

2) 안면타당도 검토 및 문항수정

선정된 예비문항에 대해서는 가족체계측정 척도개발의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을 통해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받았으며,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의 항목조정, 영역명의 변경, 불필요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항을 15명의 대학생집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항의 어색한 단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족정서척도 20문항, 가족생활만족척도 35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비문항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3. 척도 최종문항 선정

가족행복정서척도의 최종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37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과 준거 문항 2개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제시된 준거 문항은 가족행복을 전반적질문으로 물어보는 준거문항1) 당신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준거문항2) 당신의 생각에 당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원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두 문항이다. 이 두 개의 준거 문항과 가족행복정서척도 및 가족생활만족척도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준거문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정서 중에는 즐거움, 행복감, 기쁨, 만족감이, 부정적 정서 중에는 답답함, 냉랭함, 무기력과

〈표 6〉 가족행복정서척도 초기 문항과 준거문항들 간의 상관관계

		준거문항1	준거문항2
긍정 정서	사랑	.69	.70
	편안함	.70	.65
	즐거움	.72	.72
	친밀감	.68	.67
	행복감	.75	.74
	기쁨	.74	.73
	안정감	.69	.64
	흐뭇함	.69	.68
	감사	.66	.67
부정 정서	만족감	.76	.73
	분노	-.44	-.40
	소외감	-.39	-.29
	답답함	-.51	-.44
	냉랭함	-.48	-.43
	두려움	-.40	-.34
	기죽는 느낌	-.40	-.36
	짜증	-.45	-.45
	무기력	-.49	-.44
	우울함	-.54	-.47
	불안	-.48	-.41

우울함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의 강도가 강한 정서와 약한 정서가 반반 정도 섞일 수 있도록 하면서 ‘행복감’ 이나 ‘만족감’이라는 형용사가 행복정서를 측정 하는데 지나치게 동의어라고 간주되어 제외시키면서 최종척도에는 즐거움, 기쁨, 안정감, 흐뭇함, 답답함, 짜증, 무기력, 우울함 8가지 형용사가 선택되었다. 8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척도 문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생활만족척도의 예비문항과 준거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되어있다. 이 상관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최종 문항이 선별되었다. 선별기준은 첫째, 준거문항과 예비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을 선별한다. 둘째, 5개의 하위영역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동일 세부항목에 두 개 이상의 문항이 있는 경우 이 중 상관관계가 더 높은 문항을 하나만 선정한다 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5개의 하위영역별 4문항씩 20문항이 최종척도문항으로 선별되었다. 최종선별된 척도문항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4.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1) 신뢰도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의 알파값으로 계산한 신뢰도 값은 인터넷조사를 통한 일반집단에서 가족행복정서척도가 .93, 가족생활만족척도가 .94였다. 또한 건가센터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족행복정서척도가 .93, 가족생활만족척도가 .95로 만족할만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타당도

(1) 안면타당도

본 척도의 안면타당도를 위해서는 초기 문항 20문항의 타당성에 대해 가족체계척도 개발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최종 문항선정을 위해 준거 문항과의 상관관계 및 감정 형용사의 강도 등을 통한 문항 선별 과정에서 선별 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동일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문항 선별 과정상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7〉 가족생활만족척도 초기 문항과 준거문항들 간의 상관관계

하위 영역	세부항목	예비문항	준거문항1	준거문항2
기본 토대	건강	가족의 신체적 건강	.33	.38
		가족의 정신적 건강	.56	.60
	경제(돈)	가족의 경제적 상태	.44	.44
		가족의 주거환경	.46	.45
적응성	평등성	가족관계평등	.55	.51
	/의사결정	부모역할에 대한 부부간 협력	.55	.58
	역할수행	가사노동에 대한 융통성	.45	.42
		돈을 버는지에 대한 융통성	.52	.49
	스트레스	가족 내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54	.53
	대처	문제에 대한 가족의 대처방법	.55	.55
	갈등해결	가족원 갈등 표현방법	.54	.57
		가족원 갈등상황 대처방법	.55	.56
의사 소통	대화	가족원의 대화의 양	.45	.50
		가족원간의 대화방식	.58	.58
	애정표현	가족원간의 사랑의 표현	.55	.55
		가족원간의 칭찬과 감사표현	.58	.59
	관심	가족원간에 보살피는 정도	.59	.58
		가족원간의 위로와 이해정도	.58	.58
	존중	부부간의 서로 존중하는 정도	.58	.57
		부모자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정도	.57	.55
응집성	도움	가족원간에 의지하는 정도	.60	.59
		가족원간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정도	.65	.61
	화목	가족의 화목한 정도	.70	.65
		가족원간의 헌신과 양보의 정도	.60	.60
	함께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	.45	.48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46	.51
	자율성	가족원 차이 인정정도	.61	.58
	/개별성	가족원 각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용정도	.34	.28
상위체계와의 관계	사회적관심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정도	.31	.34
		이웃과 사회에 대해 지는 관심정도	.30	.37
	일-가정 조화	가족원들의 일과 가정의 조화정도	.41	.47
		가족과 이웃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35	.35
	가족의 개방성	가족과 친구 및 친척들과의 관계	.48	.44
		가족원 간에 종교적 윤리적 가치 일치도	.42	.40
	가치관과 목표	가족원 간에 가치관과 삶의 목표 공유	.58	.57

(2) 준거타당도

본 척도의 동시타당도 검사를 위해 인터넷 조사에서 본 척도와 개념적 상관성이 높은 척도 2개와 반대적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1개를 사용하였다. 활용된 척도는 Olson(2008)의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FACES IV) 중 가족의 사소통 척도(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와, Zabriskie와 Ward(2013)의 전반적가족생활만족도(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WFL), 그리고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가족관계위기징후척도(조은숙, 진미정, 2015) 등이다. 준거기준으로 활용된 척도와 가족행복정서척도 및 가족생활만족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행복정서척도는 비교 대상이 되는 세 척도와 $\pm .72 \sim .74$ 에 이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생활만족척도는 세 척도와 $\pm .68 \sim .85$ 에 이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척도는 동시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구성타당도

개발된 척도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터넷조사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개 하위척도들의 주성분 분석을 위해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가족행복정서척도는 척도문항의 분산 43.05%가 요인1로, 40.23%의 분산이 요인2로 묶였다(표 9 참고). 요인1은 긍정적 정

〈표 9〉 가족행복정서척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성분	
	요인 1 “긍정적 정서”	요인2 “부정적 정서”
기쁨	.90	-.28
흐뭇함	.90	-.26
즐거움	.90	-.30
안정감	.84	-.30
무기력	-.27	.86
짜증	-.23	.85
우울함	-.34	.85
답답함	-.27	.84
고유값	3.44	3.22
설명된 분산	43.05%	40.23%

서, 요인2는 부정적 정서라고 이름붙일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문항구성단계에서 연구자가 상정한 개념적 하위영역과 일치하고 있다.

가족생활만족척도의 요인분석결과는 당초 설정한 하위영역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 결과 척도문항의 분산 36.20%가 요인1로, 20.40%의 분산이 요인2로 묶였다(표 10 참고). 이론적으로 설정한 5개 하위영역이 2개의 하위영역으로 묶였는데, 경제적 안정 및 부양자역할의 융통성, 신체건강, 일-가정 균형 등의 문항이 요인2로 묶이고 그 외의 하위영역들이 요인1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1의 문항은 관계

〈표 8〉 가족행복정서척도, 가족생활만족척도와 비교 대상 척도 간의 상관관계

	가족행복정서	가족생활만족	SWFL	FCS
SWFL	.72	.81		
FCS	.72	.85	.77	
가족관계위기징후	-.74	-.68	-.61	-.71

〈표 10〉 가족생활만족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1 관계적 만족	2 물적기반 만족
가족원간에 위로하고 이해하는 정도	.82	.26
가족원간에 서로 보살피는 정도	.82	.24
가족의 화목한 정도	.81	.27
가족원간에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정도	.80	.32
가족원간의 대화하는 방식(정직하고 자유로운 대화 등)	.79	.15
가족원간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양보의 정도	.78	.32
부모자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정도	.75	.28
가족원이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예. 회피, 타협, 양보, 복종 등)	.75	.28
가족원 간에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정도	.65	.39
가족원의 정신적 건강상태	.58	.48
가족관계가 평등한 정도	.53	.47
우리 가족과 친구 및 친척들과의 관계	.50	.41
우리 가족이 이웃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	.40	.37
가족원 각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용 정도	.39	.24
집(주거환경)과 주변 환경	.12	.80
가족의 경제적 상태	.15	.79
누가 돈을 버는지에 대한 융통성 정도	.39	.64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상태	.21	.56
가족내의 변화(예. 이사, 입학 등)에 대한 적응력 정도	.48	.54
우리 가족원들의 일(직장)과 가정의 조화 정도	.42	.51
고유값	7.24	4.08
설명된 분산	36.20	20.40

적 측면에 대한 만족을, 요인2는 가정의 물적 기반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대별되며, 의사소통과 응집성 및 적응성의 대부분의 문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를 볼 때 본 가족생활만족도척도는 이론적으로 구상한 5개 하위영역이기 보다는 관계적만족과 물적기반의 만족 두 가지 요인을

가지는 척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가족행복지수의 계산법

가족행복지수는 가족행복정서와 가족생활만족도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 가족행복지수

$$= (\text{가족행복정서척도 각 문항값의 평균} \times 5) + (\text{가족생활만족척도 각 문항값의 평균} \times 10)$$

가족행복정서척도는 10점 리커트척도이며
 가가족생활만족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이므로
 가족행복정서척도 각 문항값의 평균에 5를 곱
 하면 최대값이 50이 되며, 가족생활만족척도
 각 문항값의 평균에 10을 곱하면 최대값이 50
 이 된다. 따라서 가족행복지수는 최소값 15에
 서 최대값 100까지 분포하는 값을 가지게 된
 다. 이와 같이 가족행복지수를 계산하는 이유
 는 1) 가족행복지수의 두 하위척도의 값이 동
 일하게 지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 100
 점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점수에 대한 가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가족행복지수를 계산했
 을 때 인터넷조사 집단은 평균 69.19점 (표준

편차 14.15), 건가센터이용자집단은 평균 73.30
 점 (표준편차 14.90)을 나타냈다.

6. 척도 시범적용 결과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행복
 지수를 활용하여 일반집단과 건가센터이용자
 집단의 자료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본 지수의
 현장활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표 11
 은 일반집단과 건가센터 이용자 집단 간의 가
 족행복지수의 차이를 성과 연령, 교육수준 등
 중요 인구학적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보기
 위해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건가센터이용 여부가 성과 연령, 교
 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족행복도와 유
 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가센터의 이용여부에서 나아가, 건가센터
 이용기간과 이용서비스의 종류(상담서비스/비
 상담서비스)에 따른 가족행복도의 차이를 보

〈표 11〉 건가센터 이용여부가 가족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족행복지수(n=455)					
		모델1		모델2		모델3	
측정변인		B	β	B	β	B	β
(상수)							
성별†		-3.97	-.14**	-3.89	-.13**	-4.62	-.16**
연령		2.22	.14**	1.96	.12*	1.57	.10*
교육수준				1.42	.07	1.35	.06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4.53	.12*
F		8.02***		6.00**		6.04***	
R ²		.03		.03		.04	
△R ²		.03		-		.01	

† 여자=1, 남자=0,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1, 그 외=0

*: p<.05, **: p<.01, ***: p<.001

〈표 12〉 가족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서비스 이용기간의 효과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족행복지수 (n=455)					
		모델1		모델2		모델3	
측정변인		B	β	B	β	B	β
(상수)							
성별†		-1.41	-.04	-3.81	-.10	-4.09	-.98
연령		4.27	.20	3.38	.16	1.67	.68
교육수준		-.30	-.01	1.17	.06	.53	.23
상담서비스이용‡				-14.20	-.41***	-11.57	-2.92**
건가서비스이용기간‡						2.46	2.06*
F		.94		4.24**		4.40**	
R ²		.04		.20		.24	
△R ²		.04		.16		.08	

† 여자=1, 남자=0, ‡ 상담서비스 이용=1, 그 외=0

‡ 이용기간은 1개월미만(1), 2-6개월(2), 6개월-1년(3), 1-2년(4), 2년이상(5)로 범주화하여 변수로 사용함

*: p<.05, **: p<.01, ***: p<.001

기 위해 역시 성,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건가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상담보다는 비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은 가족행복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이 경험하는 행복도를 지수화한 가족행복지수를 개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족행복지수는 가족이 하나의 단위로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행복을 객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보다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

복감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행복정서척도와 가족생활만족척도 두 하위척도를 구성하여 그 하위척도의 조합을 통해 가족행복지수를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및 시범적용분석을 실시했다.

가족행복정서척도는 가족 안에서 느끼는 긍정적/부정적인 정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정의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가족행복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행복정서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10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가족생활만족척도는 가족생활의 중요 영역들에 대해 가족이 느끼는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가족행복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생활만족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가족행복지수는 두 하위척도를 각각 50점씩 반영하여 만점 100점의 지수로 계산되었다. 지수

는 총 379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집단과 총 81명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집단에 대한 조사결과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등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나타내, 본 지수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가족행복의 개념에 적합한 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범적용을 위해 본 가족행복지수를 활용하여 일반집단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집단에 대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집단의 가족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행복지수의 차이는 건강가정서비스별로, 이용기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본 가족행복지수는 척도 자체로서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척도는 연구자의 의도와는 달리, 응답하는 사람이 가족 전체의 행복이 아닌, 가족생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행복'으로 보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척도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이 척도문항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이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임을 구두로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지수가 개인의 지각을 통해 가족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사람 개인의 주관성에 따라 가족체계의 행복도가 상이하게 보고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부 및 가족원 모두의 행복지수를 평균내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가족행복지수를 산출해낼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척도는 가족생활의 영역별 만족도

에서 각 개인의 중요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문항마다 "이 부분이 가족생활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별도로 하여 이를 개별 문항별로 만족도 점수와 곱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척도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척도를 간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향후 가족행복척도에서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본다.

넷째, 본 척도가 최근 한 달 동안의 정서상태와 최근 1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척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본 척도는 비교적 장기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의 효과를 가늠하는데 이용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초기 이용자들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생활만족척도의 경우 역채점 문항이 없어서 획일적 반응패턴의 발생 가능성이 생기며, 응답의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이 척도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응답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역채점 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 등이 포함된 척도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업은 이제 출범한지 10년이 넘으면서, 사업이 정착되고 장기적 결실도 맺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가정사업을 홍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잠재적 이용자들을 평가하는 간략형 도구로서 개발된 가족행복지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으로써 건강가정사업과 한국사회의 가족 건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복에 대한 일반인 및 학자들의

관심과 발맞추어 가족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가족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 중 하나로 의의를 가진다. 가족을 단위로 하여 주관적 개념인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측정상의 난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한계 가운데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측정할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인의 지각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의 본 가족행복지수가 개발되었다. 이제 이 가족행복지수 연구를 시작으로 가족행복의 과학적 측정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할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415-442.
- 김승권 (2013). 국민행복시대의 가족행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 6-27.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식, 선우성, 김병수, 박훈기, 옥선화, 차동혁 (2012). FACES IV 의 가족의사소통 척도 (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 박민자 (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183-205.
- 박민자, 김중숙 (2009). 행복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가족 분석 요인 탐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75-291.
-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배용규, 김동용, 윤용우, 정동섭 (2013).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5), 113-126.
- 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인의 가구유형별 개인특성별 주관적 행복수준. 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274, 1-8.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송혜림, 조영희, 라희문, 박충훈 (2011). 건강가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고서.
- 양순미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 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옥경 (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24, 157-198.
- 양옥경, 김연수 (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02-129.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이창섭 (2009). 농촌 노인들의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 21-47.
- 정영금, 박정운, 송혜림 (2010). 가정건강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77-197.
- 정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

- 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 진미정 (2015). 가족관계문제징후척도 개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133-156.
-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 (2013). 건강가정론 (3판). 서울: 신정.
- 진미정, 조은숙, 지혜, 최슬민 (2013). 가족관계 위기진단 척도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KIHF-047.
- 최혜영, 신혜영, 최미숙, 조성연 (2009). 한국 아동의 행복감척도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11.
- 한국갤럽 (2008). 성별 행복도에 대한 인식 조사.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79&pagePos=2&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 Barraca, J., Yarto, L. L. & Olea, J.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new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2), 98-106.
- Booth, A. L., & Van Ours, J. C. (2008). Job satisfaction and family happiness: The part time work puzzle. *The Economic Journal*, 118(526), F77-F99.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685-70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3, 187-219.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pstein, N. B., Baldwin, L. M., & Bishop, D. S. (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71-180.
- Fordyce, M. W. (1977). Development of a program to increase personal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6), 511-521.
- Guerney, B. G., Jr.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 Bass.
- Lam, W. W. T., Fielding, R., McDowell, I., Johnston, J., Chan, S., Leung, G. M., & Lam, T. H. (2012). Perspectives on family health, happiness and harmony (3H) among Hong Kong Chinese people: a qualitative study. *Health Education Research*, cys087.
- Lawton, M.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0, 86-89.
- Lu, L., & Lin, Y. Y. (1998). Family roles and happiness in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2), 195-207.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cCollum, E. E., Schumm, W. R., & Russell, C. S. (198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in a predominantly middle aged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62, 95-98.
- OECD Better Life Index. (2012). Create your better life index. Retrieved May 2, 2015,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
-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Olson, D. H. (2008). *FACES IV Manual*.

-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9). *Circumplex model: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Y.: Haworth Press.
- Olson, D. H., & Wilson, M. A. (1982). Family Satisfaction Scale. In D. H. Olson, H. I. McCubbin, H. L. Barnes, A. S. Larsen, M. J. Musen, & M. A.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25-31)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Rogers, S. J., & White, L. 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Zabriskie, R. B., & Ward, P. J. (2013).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cale. *Marriage & Family Review*, 49(5), 446-463.

☐ 논문접수일 : 2016년 01월 22일
☐ 심사시작일 : 2016년 0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02월 28일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amily Happiness Index

Eunsuk Cho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mily Happiness Index. A measure of a family's subjective well-being, the index was designed to be used primarily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Methods:** The researcher developed the index as a composition of two measures: family affect and satisfaction of family life. Preliminary index items were selected through reference to the previous literature and were refined during the pilot study through professional consultations. The final items were selected through an internet survey (N=379), using each item's conceptual importance and its correlation with two reference items. **Results:** The index developed as two scales: the Family Affect Scale (eight items) and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20 items). Reliability (Chronbach's alpha) and validity test results were satisfactory. **Conclusions:** As one of the first measurements of family happiness, this index has several limitations; however, it should stimulate further discussions regarding the measurement of family happiness.

Keywords: *Family Happiness Index, fami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부록 1〉 가족행복정서척도

귀하의 가족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설 문 내 용	거의 느끼지 않음								매우 자주 느낌	
1. 즐거움	1	2	3	4	5	6	7	8	9	10
2. 기쁨	1	2	3	4	5	6	7	8	9	10
3. 안정감	1	2	3	4	5	6	7	8	9	10
4. 흐뭇함	1	2	3	4	5	6	7	8	9	10
5. 답답함	10	9	8	7	6	5	4	3	2	1
6. 짜증	10	9	8	7	6	5	4	3	2	1
7. 무기력	10	9	8	7	6	5	4	3	2	1
8. 우울감	10	9	8	7	6	5	4	3	2	1

〈부록 2〉 가족생활만족척도

귀하의 가족은 다음에 제시되는 가족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요? 해당하는 곳에 표해주십시오.

설 문 내 용	매우 불만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1. 우리가족은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가족은 가족원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3. 우리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4. 우리가족은 집(주거환경)과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5. 우리가족은 가족관계가 평등한 정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6. 우리가족은 누가 돈을 버는지에 대한 가족의 융통성 정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7. 우리가족은 가족내의 변화(예. 이사, 입학 등)에 대한 가족의 적응력 정도에 만족한다	1	2	3	4	5
8. 우리가족은 가족원이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예. 회피, 타협, 양보, 복종 등)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9.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의 대화하는 방식(정직하고 자유로운 대화 등)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0.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에 서로 보살피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1.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에 위로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2. 우리가족은 부모자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3.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에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4. 우리가족은 가족의 화목한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5.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양보의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6. 우리가족은 가족원 각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용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7. 우리가족은 가족원들이 이웃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관심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8. 우리가족은 가족원들의 일(직장)과 가정의 조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19. 우리가족은 친구 및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20. 우리가족은 가족원 간에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